

하나금융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성금 100억원 전달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을 통한 행복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 강당에서 진행된 '희망 2019 나눔캠페인'에서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써달라고 100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연말 이웃돕기 성금은 KEB하나은행이 서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사회공헌기금 13억원에, 하나금융그룹 12개 관계사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한 87억원의 성금이 더해졌다.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함영주 행장은 "디지털 시대에도 변하지 않을 금융의 가치가 있다면, 이것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나눔"이라며 "모금회와 함께 우리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한 금융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미션이 나눔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세상인 만큼 하나금융그룹이 앞장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달성하기 위해 저

출산 시대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 지원 사업,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